

<지혜로운 여인>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7/15(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25:1-8

1.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그르쳤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영적 스승인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는 판단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혹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을 때,
성급하게 내렸던 판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2.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제목에서 보여주듯,
오늘 말씀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이,
반드시 '여성'이라는 성별에만 국한 짓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 가정이나 홀로 있는 가정,
혹은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이 목원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남녀의 구분을 떠나 내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평소애 나에게 부족했던 모습들,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먼저 '솔직한' 나눔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